

정신증적 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서혜수 · 이종훈 · 정성덕

서 론

정신증적 경향이라 함은 정신병적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정신병이 시작될 경우도 해당 되겠지만 이미 정신병이 발병했을 경우는 판단장애가 심하여 현실적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 분명한 정신병 환자나 뇌의 기질적 장애자 및 지능발육 지연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조사대상에서는 제외 되었다

이러한 정신증적 경향은 신경증적 경향과는 달리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나 감정이 비현실적이거나 병적상태라는 것을 잘 모르는게 특징이고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판단기준이 흔들리는게 보통이다¹⁾ 즉, 공상이 잦아서 망상화(formation of delusion)하고 있거나 감정이 고르지 못하여 과잉 흥분이 되거나 도전적으로 흐르기 쉽고, 때로는 착각(illusion)이나 일시적인 환각(hallucination)을 보일 때도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소 염려스러워 하기도 하나 대부분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곧잘 시도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인식(insight)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보통 수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되다 보면 인격이 점차 왜곡(distortion)되어 붕괴(splitting)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지나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²⁾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정신병으로 이행된 정신질환이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증이나(schizophrenic psychosis) 정서장애의 대표적인 조울정신증(manic depressive psychosis)이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은 대개 청소년후기와 초기 성년기에 처음 발병하기 쉬우며 그 원인으로 생

물학적, 문화사회적 및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분명한 근거를 밝혀 내지 못한 현실정이다.³⁾ 예컨대 조울정신증인 경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도전한 결과 유전적인 요인을 일부 인정받았다^{4~8)} 그러나 정신분열증에서는 이런 관점보다 사회문화적인 여건속에서 가족내의 의사소통의 장애나 인격발달 과정상에 입은 정신적 상처(psychic trauma)에다 초점을 겨냥 결과 정신역동적인 측면(psychodynamic aspects)에서 그 원인을 추구해 왔으며 이 또한 입증된 바 있다.^{9~10)} 이들의 발생빈도는 정신분열증이 0.2~1%이며, 조울정신증이 0.4~1.2% 정도로 보고 있다.¹¹⁾

본 조사대상인 대학생은 이런 정신질환이 초발할 연령군에 속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정신질환 발병율 보다는 발병전의 잠복된 상태에 놓인 경우를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학생의 정신위생 대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조사대상 및 방법

198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영남대학교 13개 단과대학 학생 18,819명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층화추출하여 각 단과대학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로 Derogatis 등이 고안한 간이정신진단검사(부표 참조)에 의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응답자 수는 5,869명으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8.2%에 해당했고, 여학생은 39.4%였으며, 남녀 응답자 수는 전체 학생의 31.2%에 해당했다(표1). 학년별로는 남녀 합해서 1학년이 32.9%, 2학년이 36.1%, 3학년이 32.6%였고, 4학년이 20.3%였다(표2).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Attended College and Sex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Liberal Arts	1,160	1,162	2,322	450 (38.8)	550 (47.3)	1,000 (43.1)
Science	831	465	1,296	134 (16.1)	91 (19.6)	225 (17.4)
Engineering	4,252	74	4,326	1,413 (33.2)	31 (41.9)	1,444 (33.4)
Law & Political	763	24	787	100 (13.1)	7 (29.2)	107 (13.6)
Commerce & Economics	1,483	17	1,500	409 (27.6)	9 (52.9)	418 (27.9)
Medicine	292	40	332	206 (70.5)	34 (85.0)	240 (72.3)
Pharmacy	109	271	380	48 (44.0)	156 (57.6)	204 (53.7)
Agriculture	1,168	168	1,336	355 (30.4)	38 (22.6)	393 (29.4)
Home Economics	0	808	808	0	413 (51.1)	413 (51.1)
Education	563	726	1,289	91 (16.2)	260 (35.8)	351 (27.2)
Fine Arts	223	310	533	87 (39.0)	139 (44.8)	226 (42.4)
Musics	111	465	576	48 (43.2)	180 (38.7)	228 (39.6)
Evening Programs	2,850	484	3,334	552 (19.4)	68 (14.0)	620 (18.6)
Total	13,805	5,014	18,819	3,893 (28.2)	1,976 (39.4)	5,869 (31.2)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llege Grade and Sex

College grad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Freshman	4,198	1,451	5,649	1,355 (32.3)	504 (34.7)	1,859 (32.9)
Sophomore	3,723	1,472	5,195	1,137 (30.5)	740 (50.3)	1,877 (36.1)
Junior	3,040	1,168	4,208	901 (29.6)	469 (40.2)	1,370 (32.6)
Senior	2,844	923	3,767	500 (17.6)	263 (28.5)	763 (20.3)
Total	13,805	5,014	18,819	3,893 (28.2)	1,976 (39.4)	5,869 (31.2)

Table 3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Sex

Age (yrs.)	Male		Female		Both	
	No.	(%)	No.	(%)	No.	(%)
—18	306	(7.9)	232	(11.7)	538	(9.2)
19	740	(19.0)	462	(23.4)	1,202	(20.5)
20	732	(18.8)	586	(29.7)	1,318	(22.5)
21	436	(11.2)	380	(19.2)	816	(13.9)
22	256	(6.6)	219	(11.1)	475	(8.1)
23	208	(5.3)	60	(3.0)	268	(4.6)
24	382	(9.8)	23	(1.2)	406	(6.9)
25	405	(10.4)	6	(0.3)	411	(7.0)
26—	428	(11.0)	7	(0.4)	435	(7.4)
Total	3,893	(100.0)	1,976	(100.0)	5,869	(100.0)

년령별로는 19세가 20.5%, 20세가 22.5%, 21세가 13.9%, 22세가 8.1%로서 19세에서 22세가 전체의 65%였다(표 3).

조사방법은 Derogatis (1973)¹²⁾ 등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로 이는 9 가지 종류의 정신병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고안된 객관식 질문법 검사인데 그 중 정신증적 경향(psychoticism : 정신증 척도)을 사용하였다 (별지 참조).

이 척도는 고립적이고 철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정신분열증 성격(schizoid personality)의 특징인 소외감(alienation) 및 고독감(loneliness) 과 Schneider가 제시한 정신분열증의 주증상 중 조정망상(idea of control),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관계망상(idea of reference) 및 사고주입망상(thought insertion) 등과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의 전구증상(prodromal symptoms)이라고 볼 수 있는 성문제(sexual problems)로 인한 지나친 고민,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정서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 및 죄책감(guilty feel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chneider는 그가 말한 주증상이 한가지 이상 분명히 있을 경우는 이미 정신병에 돌입된 상태라고 간주했다¹³⁾

이와 같은 10개의 항목은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여 총점이 10점에서 50점까지 측정되는데 고득점 일수록 정신증적 경향이 심한 상태라고 보는 척도이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어 그 신뢰도¹⁴⁾와 타당도^{15~16)}가 입증된 바 있

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총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그 수가 약 전체의 3% 가량 되므로 이를 정신질환 발병 가능기준(probability of incidence)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기서 사용된 정신증 척도의 문항과 불안, 우울 및 신경증 척도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필요에 따라 변량분석(ANOVA)과 t검정을 시행하였다

성 적

정신증 척도로 평가한 남자 대학생(후후: 남대생으로 약함)의 평균총점은 6.81 ± 5.13 이며, 여자 대학생(후후: 여대생으로 약함)은 8.14 ± 5.05 로서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항목별 성적은 남대생에서 높게 평가한 항목은 상위로부터 ⑤ 고독감(loneliness), ⑨ 소외감(alienation), ⑧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및 ⑩ 정서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 등이었고 여대생에서는 ⑤ 고독감, ⑨ 소외감, ⑩ 정서불균형 및 ⑧ 건강염려증 등으로 순서가 틀릴뿐 동일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대생이 평가한 하위 수준의 항목은 ②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① 조정망상(idea of control), ③ 관계망상(delusions of reference) 및 ⑦ 죄책감(guilty feeling) 등이었고, 여대생은 ② 환청, ⑥ 성문제(sexual problem),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Psychoticism.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tems of Psychoticism	Male (M=3, 893) M ± SD	Female (N=1, 976) M ± SD
1. Some one else control thoughts	0.45 ± 0.73	0.58 ± 0.77***
2. Hearing voices others don't (hear)	0.20 ± 0.54	0.24 ± 0.56**
3. Others aware of private thoughts	0.49 ± 0.68	0.65 ± 0.74***
4. Having thoughts not your own	0.61 ± 0.82	0.78 ± 0.87***
5. Feeling lonely with people	1.08 ± 1.02	1.56 ± 0.99***
6. Thoughts about sex that bother you	0.72 ± 0.90***	0.55 ± 0.78
7. Idea you should be punished	0.54 ± 0.81	0.63 ± 0.84***
8. Idea something wrong with body	0.91 ± 0.98	0.90 ± 0.93
9. Never feeling close to another	0.95 ± 0.99	1.20 ± 1.00***
10. Idea something wrong with mind	0.86 ± 0.96	1.04 ± 1.00***
Total	6.81 ± 5.13	8.14 ± 5.05***

① 조정망상 및 ⑦ 죄책감 등이었다 정신증적 척도의 항목별 성적중 ⑥ 성문제 ($P < 0.001$)를 제외하고는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높은 성적을 보였다(표 4).

남대생의 성적분포는 0~4 점대가 37.8% (1,472명), 5~9 점대가 37.0% (1,440명), 10~14 점대가 16.9% (658명), 15~19 점대가 6.0% (235명) 등이며, 20점 이상이 2.4% (88명)이었으며, 여대생의 분포는 0~4 점대가 25.1% (495명), 5~9 점대가 41.5% (820명), 10~14 점대가 22.6% (446명), 15~19 점대가 7.7% (153명), 20 점대가 3.2% (63명)으로 고득점자가 여대생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5).

Table 5. Total Score Distribution of Psychoticism Scale in th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otal score	Male (N=3,893) No. (%)	Female (N=1,976) No. (%)
0-9	2912 (74.3)	1315 (66.6)
10-19	893 (22.9)	599 (30.3)
20-29	80 (2.1)	57 (2.9)
30-40	8 (0.3)	5 (0.3)
20 over	38 (2.3)	62 (3.1)

소속대학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의 경우 법정대학생들의 평균총점이 8.1로서 가장 높았고, 여대생의 경우 상경대학생들의 평균총점이 11.3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고득점율은 법정대학 2.0%, 상경대학 22.0%이었다

학년별로 평가한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1학년(3.4%), 2학년(2.1%), 3학년(1.4%) 및 4학년(1.0%)의 순으로 이 분포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여대생은 1학년(4.2%), 2학년(3.5%), 3학년(2.1%) 및 4학년(1.9%)의 순으로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장지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면(2.9%), 중소도시(2.4%), 대도시(2.0%) 및 읍(1.6%) 순으로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대생일 경우 면(4.3%), 읍(3.6%), 중소도시(3.3%) 및 대도시(2.8%) 순으로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출신고등학교 소재지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중소도시(2.9%), 면(2.6%), 대도시

(2.1%) 및 읍(1.7%)의 순이며, 여대생은 면(6.1%), 읍(5.1%), 대도시(3.1%) 및 중소도시(2.6%)의 순으로 이 성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거주지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친척이나 하숙(3.0%), 자취(2.8%), 자택(2.0%), 기숙사(1.6%) 및 기타(1.4%)의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대생은 기숙사(9.8%), 자취(3.8%), 자택(2.8%), 기타(2.0%) 및 친척이나 하숙(1.5%)의 순이었으며,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종교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개신교(2.9%), 기타(2.6%), 무교(2.3%), 불교(2.1%) 및 천주교(0.8%)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대생은 천주교(3.4%), 개신교(3.4%), 무교(3.2%), 불교(2.4%) 및 기타는 한명도 없으며 이 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소속대학 선택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불만(4.3%), 만족(2.1%) 및 보통(1.7%)의 순이며, 여대생은 불만(5.6%), 보통(3.0%) 및 만족(2.3%) 순으로 이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현재소속학과 선택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불만(3.7%), 보통(2.1%) 및 만족(2.0%)의 순이며, 여대생은 불만(6.5%), 보통(3.0%) 및 만족(1.9%)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자기 자신의 과거 만족 정도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4.9%), 낙관(2.1%) 및 보통(1.5%)의 순이며, 여대생은 비판(11.0%), 보통(2.3%) 및 낙관(1.5%)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자기 자신의 현재의 만족 정도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6.2%), 낙관(2.0%) 및 보통(1.4%)의 순이었으며, 여대생은 비판(12.2%), 낙관(1.7%) 및 보통(1.5%)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6.8%), 보통(1.9%) 및 낙관(1.8%)의 순이었으며, 여대생은 비판(11.2%), 낙관(3.0%) 및 보통(2.0%)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학비부담자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형제 자매(2.4%),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는 학생(2.3%), 장학금(2.3%) 및 본인(0.7%)의 순으

로 유의했으며 ($P < 0.01$), 여대생은 본인(12.5%), 형제 자매(8.3%), 부모(3.0%) 및 장학금(1.0%)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월잡비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1만원 미만(4.7%), 10만원 이상(4.5%), 5~7만원(2.7%), 7~10만원(2.6%), 1~3만원(1.9%)

및 3~5만원(1.8%)의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여대생은 1만원 미만(10.3%), 10만원 이상(7.5%), 7~10만원(3.6%), 3~5만원(3.1%), 5~7만원(2.9%) 및 1만~3만원(2.1%)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Table 6. Mean Scores of Psychoticism Saale in the College Students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

Factors	Male (N=3,893)			Female (N=1,976)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0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0 & over (%)
College						
Liberal arts	450 (11.6)	7.3	11 (2.4)	550 (27.8)	8.6	23 (4.2)
Science	134 (3.4)	6.8	2 (1.5)	91 (4.6)	8.6	3 (3.3)
Engineering	1413 (36.3)	6.8	30 (2.1)	31 (1.6)	8.6	1 (3.2)
Law and Political science	100 (2.6)***	8.1	2 (2.0)	7 (0.4)	8.9	0 (0.0)
Commerce and Economics	409 (10.5)	7.1	9 (2.2)	9 (0.5)***	11.3	2 (22.2)
Medicine	206 (5.3)	6.1	3 (1.5)	34 (1.7)	4.7	1 (2.9)
Pharmacy	48 (1.2)	7.7	0 (0.0)	156 (7.9)	8.2	6 (3.8)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355 (9.1)	6.7	9 (2.5)	38 (1.9)	9.0	1 (2.6)
Home economics	0 (0.0)	0.0	0 (0.0)	413 (20.9)	7.6	5 (1.2)
Education	91 (2.3)	6.5	2 (2.2)	260 (13.2)	8.2	6 (2.3)
Fine arts	87 (2.2)	7.4	4 (4.6)	139 (7.0)	8.4	6 (4.3)
Music	48 (1.2)	7.7	2 (4.2)	180 (9.1)	7.5	3 (1.7)
Evening programs	552 (14.2)	6.1	14 (2.5)	68 (3.4)	9.1	5 (7.4)
School grade						
Freshman	1355 (34.8)***	7.5	46 (3.4)	504 (25.5)	8.4	21 (4.2)
Sophomore	1137 (29.2)	7.1	24 (2.1)	740 (37.5)	8.3	26 (3.5)
Junior	901 (23.1)	6.1	13 (1.4)	469 (23.7)	7.8	10 (2.1)
Semor	500 (12.8)	5.6	5 (1.0)	263 (13.3)	7.8	5 (1.9)
Maturation location						
Myun	1105 (28.4)	7.0	32 (2.9)	254 (12.9)	8.6	11 (4.3)
Up	485 (12.5)	6.6	8 (1.6)	221 (11.2)	8.5	8 (3.6)
City	498 (12.8)	6.9	12 (2.4)	305 (15.4)*	8.6	10 (3.3)
Large city	1805 (46.4)	6.7	36 (2.0)	1196 (60.5)	7.9	33 (2.8)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4 (2.9)	7.2	3 (2.6)	33 (1.7)	8.5	2 (6.1)
Up	239 (6.1)	7.0	4 (1.7)	98 (5.0)	8.5	5 (5.1)
City	683 (17.5)	7.0	20 (2.9)	311 (15.7)	8.5	8 (2.6)

Large city	2857 (73.4)	6.7	61 (2.1)	1534 (77.6)	8.0	47 (3.1)
Residence						
Own house	2322 (59.7)	6.7	46 (2.0)	1524 (77.1)	7.9	43 (2.8)
Relatives and boarding	369 (9.5)	6.5	11 (3.0)	68 (3.4)	9.2	1 (1.5)
Self-cooking	1010 (25.9)	7.0	28 (2.8)	338 (17.1)	8.8	13 (3.8)
Dormitory	122 (3.1)	7.6	2 (1.6)	41 (2.1)	10.4	4 (9.8)
Others	70 (1.8)	6.7	1 (1.4)	5 (0.3)***	13.8	1 (2.0)
Religion						
Protestant	624 (16.0)	7.2	18 (2.9)	387 (19.6)	8.5	13 (3.4)
Catholic	259 (6.7)	7.0	2 (0.8)	208 (10.5)	8.5	7 (3.4)
Buddist	667 (17.1)	6.7	14 (2.1)	251 (12.7)	7.4	6 (2.4)
Others	39 (1.0)	8.4	1 (2.6)	7 (0.4)	9.6	0 (0.0)
None	2304 (59.2)	6.7	53 (2.3)	1123 (56.8)	8.1	36 (3.2)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631 (16.2)***	8.3	27 (4.3)	268 (13.6)***	9.5	15 (5.6)
Mediate	1950 (50.1)	6.7	34 (1.7)	1066 (54.0)	8.2	32 (3.0)
Satisfied	1312 (33.7)	6.2	27 (2.1)	642 (32.5)	7.5	15 (2.3)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508 (13.1)	8.4	19 (3.7)	291 (14.7)***	9.6	19 (6.5)
Mediate	1850 (47.5)	6.9	39 (2.1)	987 (50.0)	8.2	30 (3.0)
Satisfied	1535 (39.4)	6.2	30 (2.0)	698 (35.3)	7.5	13 (1.9)
Past self-image						
Pessimistic	749 (19.2)***	9.0	37 (4.9)	236 (11.9)***	11.5	26 (11.0)
Uncertain	2325 (59.7)	6.2	34 (1.5)	1268 (64.2)	7.8	29 (2.3)
Optimistic	819 (21.0)	6.4	17 (2.1)	472 (23.9)	7.3	7 (1.5)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629 (16.2)***	10.0	39 (6.2)	294 (14.9)***	12.0	36 (12.2)
Uncertain	2666 (68.5)	6.3	37 (1.4)	1441 (72.9)	7.7	22 (1.5)
Optimistic	598 (15.4)	5.7	12 (2.0)	241 (12.2)	6.0	4 (1.7)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323 (8.3)***	10.1	22 (6.8)	170 (8.6)***	11.1	19 (11.2)
Uncertain	2061 (52.9)	6.9	39 (1.9)	1115 (56.4)	8.2	22 (2.0)
Optimistic	1509 (38.8)	6.0	27 (1.8)	691 (35.0)	7.4	21 (3.0)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3414 (87.7)**	6.9	79 (2.3)	1820 (92.1)	8.1	55 (3.0)
Brothers & sisters	211 (5.4)	6.4	5 (2.4)	24 (1.2)*	10.5	2 (8.3)
Scholarship fund	120 (3.3)	6.6	3 (2.3)	101 (5.1)	7.6	1 (1.0)
Self	139 (3.6)	5.3	1 (0.7)	32 (1.6)	9.6	4 (12.5)
Spending money per month (won)						
Under 10,000	148 (3.8)*	8.0	7 (4.7)	39 (2.0)	9.5	4 (10.3)
10,000~29,000	948 (24.4)	7.1	18 (1.9)	478 (24.2)	7.9	10 (2.1)
30,000~49,000	1539 (39.5)	6.7	27 (1.8)	927 (46.9)	8.1	29 (3.1)

50,000~69,000	750(19.3)	6.6	20(2.7)	341(17.3)	7.9	10(2.9)
70,000~99,000	351(9.0)	6.6	9(2.6)	138(7.0)	8.9	5(3.6)
Over 100,000	157(4.0)	6.9	7(4.5)	53(2.7)	9.4	4(7.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정신증적(경향)척도와 불안, 우울 및 신경증적 경향과의 상관계수가 r=0.40 이상인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Psychoticism Scale in 5,869 Responded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d Psychoticism Correlation	
Depressed affect vs. Never feeling close to another	0.46
Depressed affect vs. Idea something wrong with mind	0.43
Depressed affect vs. Feeling lonely with people	0.40

정신증적 경향척도와 불안척도 및 신경증적 경향척도 사이에는 두드러진 상관을 보이는 문항은 없고, 몇몇 문항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 이하). 정신증 척도와 우울척도간을 보면 우울항목중 ① 우울감(depressed affect)과 정신증 척도중 ⑨ 소외감(alienation)은 r=0.46, ⑩ 심적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은 r=0.43이며 ⑤ 고독감(loneliness)은 r=0.40이었다(표 7).

고 찰

우선 총점에서 볼 때 여대생이 남대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는 김¹⁴⁾ 등이 조사한 정상인의 반응특성의 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Derogatis 등의 표준화 집단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¹²⁾ 일반적으로 신경증의 경우 여자에서 발병률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¹⁷⁾ 정신증적 경향이 여대생에서 더 높은 것은 본 조사중 불안 및 우울척도에서 본 결과 불안과 우울이 남대생에 비해 여대생에서 호소하는 증세가 더 많다는 점은 비교해 볼 수 있으나 더 명확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증적 경향의 항목별 성적에서 남대생에서

높게 평가한 문항이 ⑤ 고독감(loneliness), ⑨ 소외감(alienation), ⑧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및 ⑩ 정서 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의 순서였으며, 이는 여대생의 증세와 일치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prodromal symptoms)인 “무엇인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막연한 생각 같은 건강염려 경향,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세상이 벌러 떨어진 것처럼 느끼고 실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인증(depersionalization)와 비현실감 및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¹⁸⁾

두번째로 정신증적 경향의 점수분포는 2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대생의 경우 2.4%, 여대생의 경우 3.2%로 일반인의 정신분열병(0.2~1%), 조울정신병(0.4~1.2%)의 유병율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18세~21세)에 정신분열증, 우울증 및 자살이 빈번하다는 Werk의 해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¹⁹⁾ 주체성 및 자율성의 확립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과제라는 Erikson의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²⁰⁾

세째, 이와 같은 정신증적 성적의 고득점이 어떠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대생에서 공통적으로 정신증적 경향과 유관한 요인들은 소속 대학 선택 및 현소속 학과에 대한 불만족(P<0.001)과 과거와 현재의 만족도, 그리고 미래의 기대에 대한 비관적 경우(P<0.001) 등이었다. 이는 점차 치열해져 가는 경쟁적 목표 성취에 대한 부담감 및 좌절감과 과도기적 한국 현실에서 진학, 취업, 성도덕관의 재평가, 결혼문제, 경제적인 문제 및 부모의 과잉기대 등의 왜곡된 사회교육적 풍토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남대생에서 1학년이 유의하게 정신증적 성적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증적 경향 성적이 낮은 것은 1학년 시절에는 여러 가지 심적문제, 중간 탈락 및 자아주체성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나 고학년이 될 수록 학과에 대한 목표성취나 자기확립 및 사회생활 적응을 불안이나 우울에서 처럼 그 전보다 더 잘 대응해 나가는 것

으로 추정된다.

남대생에서 월 일만원 이하의 용돈을 쓰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성적($P < 0.05$)을 보였으며, 여대생에서 성장지가 중소도시에서 높은 성적($P < 0.05$)을 보였다 여대생은 현 거주지가 기타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P < 0.001$) 성적을 보였으나 사례 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겠다 여대생은 종교별에서 기타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정신증적 성적($P < 0.05$) 및 고득점율이 높았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중 이러한 몇 가지 남대생의 차이와 20점 이상의 고득점자간의 연관성은 개별적인 원인분석을 위한 개인상담을 추진한다면 그 요인이 추구될 것인바 이러한 추적조사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정신건강대책 수립에 필요 불가결한 시도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요 약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5,869명(남대생 3,893명, 여대생 1,976명)을 대상으로 정신증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신증 척도의 총점은 남대생 6.81 ± 5.13 , 여대생 8.14 ± 5.05 으로 여대생이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P < 0.001$).

정신증척도의 항목별 성적은 문항 ⑥ 성문제(sexual problemes)를 제외하고 모두가 여대생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정신증척도의 성적분포는 2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남대생 88명(2.4%), 여대생 63명(3.2%)으로 여대생에서 다소 높은 성적을 보였다

정신증적 경향과 관련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들중 남녀 내학생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은 소속대학 및 현 소속학과 선택에서 불만인 경우($P < 0.001$)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비관인 경우($P < 0.001$) 등에서 유의하였다

남대생 단독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은 저학년인 경우($P < 0.001$)와 월 잡비별 성적중 일만원 이하인 경우($P < 0.05$)였다 여대생 단독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은 성장지가 중소도시의 경우($P < 0.05$)였다.

상관계수($r=0.40$ 이상)인 문항들은 정신증적 척도 문항인 ⑨ 소외감($r=0.46$), ⑩ 정서불균형($r=0.43$), ⑤ 고독감($r=0.40$) 등과 우울척도 문

항인 ① 우울감과 사이에 각각 상관이 있었다

참 고 문 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80, P. 367.
2. Kolb, L. C. and Brodie, H. 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 463.
3. ibid, P. 358.
4. Allen, M. G., Cohen, S., Pollin, W., and Greenspan, S. I.: Affective illness in veteran A diagnostic review. Am. J. Psychiatry,
5. Fieve, R. R., Mendlewicz, J., and Floiss, J. I., Manic-depressive illness: Linkage with xg blood group. am. J. Psychiat., 130:1355-1362, 1975.
6. Gershen. E. S., Dunner, D. L., and Goodwin, F. K.,: Toward abiology of affective disorders. Arch. Gen Psychiatry, 25:1-15, 1971.
7. Gershen, E. S. and Jonas, W. Z., Erythrocyte-Soluble Catechole-methyltransferase activity in Primary affective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32:1351-1356, 1975.
8. Marten, S. A., Cadoret, R. J., and winokar, G.: Unipolar depression-a family study. Bid. Psychiatry, 4:205-213, 1972.
9. Dunbam, H. W.: Sociocultural studies of Schizophrenia, Arch. Gen. Psychiatry, 21: 206-214, 1971.
10. Wynne, L. C., and Singer, M. T.: Thought disorder and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Arch. Gen. Psychiatry, 9:191-198, 199-206, 1963.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80, pp. 217.
12. Derogatis, L. R., Lipman. R. S., and L. Covi, L.: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 ratm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 Cology, Bulletin*, 9:13, 27, 1973.
13. Mellor, C. S. :First rank Symptoms of Schizophrenia *Brit. J. Psychiatry.*, 117: 15-23, 1970.
 14. 김광일, 원호택 :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1 —정상인의 반응특성— *신경정신과학*, 17:449-458, 1978.
 15. Denogatis, L. R. L. and Cleary, P. A.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for the Primary symptom dimensions of the SCL-90. *Brit. J. Clin Psycrd.*, 16:347-356.
 16. 김재환, 김광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1984.
 17. Kolb, L. C. and Brodie, H. 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467.
 1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80, pp. 189.

- 부 표 -

Psychoticism Scale (정신증 척도)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종종 그렇다 (3) 꽤 심하다 (4) 아주 심하다	
1. Someone else control thoughts	1.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는것 같다.	
2. Hearing voices others don't hear	2.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린다.	
3. Others aware of private thoughts	3. 나의 새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것 같다.	
4. Having thoughts not your own	4.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같지 않다.	
5. Feeling lonely with people	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고독을 느낀다.	
6. Thoughts about sex that bother you	6. 성 문제로 고민한다	
7. Idea you should be punished	7.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8. Idea something wrong with body	8. 내 몸 어딘가가 병 들었다고 생각한다.	
9. Never feeling close to another	9.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10. Idea something wrong with mind	10.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 Abstract —

A Study on Psychoticism in College Students

Hye Soo Suh, Jung Hoon Lee, and Sung Do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Psychoticism, using SCL-90, in the subjects of 3,893 male college students and 1,976 female college students of Yeung Nam University, collecting data during the periods from October to November, 1984.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psychoticism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scored 6.81 ± 5.13 female students scored 8.14 ± 5.05 .
2. Eighty eight male students (2.4%) showed seriously high psychoticism scores of 20 or higher, while 63 female students (3.2%) showed the same scores.
3. In a comparison between male students in different school grades, freshme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sychoticism scores, and as the grades of students became higher, the levels of psychoticism scores were lower.
4. Among the psychosocial factors, there were strong tendencies toward higher psychoticism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college, and had pessimistic views of self im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s.
5. The male students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their parents, and whose spending money per month was under 10,000won,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ticism scores.
6. The female students whose maturation locations were city,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departments, who resided in dormitory of other residencies, and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their brothers or sisters,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ticism scores.
7. The items relating to 5 (Feeling lonely with people) 9 (Never feeling close to another) 10 (Idea something writh mind) in psychoticism and the item of depressed affect in SD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ver 0.40 of correlation coefficient.